밥도 안해놓고 배 부르려하면 안돼

☞ 19면에서 계속

고 살랍니까? 공부하는 것도 말끔히 씻어져야 만이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저 그렇게 해 보신다면 아마 잘될 것입니다.

주인공이 '참나'면 보이는 나는?

문 일체를 주관하는 주인공이 참 나라면 보이는 나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항상 마음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들고나는 모든 것을 다 그 자리에서 하는데 나는 왜 나와서 이렇게 심부름만 하는가 하는 생각도 마찬가지로 항상 마음속에서 맴돕니다. 어리석은 질문인 줄 압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법당에 올라가면 삼 배를 올리고, 또 급하면 일 배를 올릴 때에 둥글려서 올리고 둥글려서 놓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5년이고 10년이고 다닌다고 그래도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다녀요. 법당에 들어가면 저 부처님이 내 모습과 둘이 아닌 것을 아시라고 선법가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왜 그걸 모르십니까? 내가 진정코 믿는 곳에 딱 집어야 결정이 나는 거지, 딱 집지 않고 어떻게 결정이 납니까?

이게 보이는 데도 여러분이 계시고 보이지 않은 데도 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가 더 많다면 많죠.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서 다니면서 어떻게들 사세요? 내 주인공이라는 주장자 하나 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 해 주고, 언짢은 일은 언짢은 일 대로 좋게 펴 주고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해 주고 살면 얼마나 편안해요? 원수 짓지도 않고 세세생생, 아니 끌간 데 없이 가도 '저거 내게 원수야.' 이러지도 않을 거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름해서 부처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자체가 없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라는 말이에요. 나라는 게 없는 그런 자체가 부처라는 거죠.

알고 보면 하나도 나를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나 아닌 나가 있으니까요. 나 아닌 나가 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체 만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일체 화현을 가지고 있구요. 일체 화현의 도리를 가지고 있구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체는 그저 응용하는 대로, 팔이 들리면 들리는 대로 들어 주고, 다리가 들리면 들리는 대로 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절에서 말한다면 시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따지고 보세요. 주인을 바깥으로 두었다면 시자 노릇을 다 못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자기는 시자로서 그 안 보이는 자기 주인의 심부름을 다 하죠. 그래서 모두 안목이 있죠. 예를 들어 '아, 이 사람이 정치에 나왔는데 좀 쓸만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가벼워서 안되겠어. 그 값어치는 좀 못돼.' 이러고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이 다 도인이에요. 그냥 부처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지혜로운 납득이, 공법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먹는 것도 내가 먹는다고 '아이, 맛있게 먹었어. 참 잘 먹었네.' 이러지만요. 그게 내가 먹은 게 아니라요, 모두 자기 역량대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순식간에, 먹으려고 생각을 해 놓고 먹는 게 아니라 반찬이 쭉 있으면 여기서 집어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부터 집어먹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집어먹게 되면 여기서 소화 기능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안에서는 좋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먹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할 말도 심부름해요. 말도 자기 말이 아니라 모두 거기의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참 귀하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줄은 정말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귀하게 부모의 은덕으로 몸을 빌어서 받고, 내가 이 귀한 원소 자체를, 자불(自佛)이라는 원소 자체, 그것이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알았다.' 그 에너지의 한 방울에 의해서 이 우주의 에너지를 다 같이 할 수가 있는 한 덩어리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지구에서 살면서 에너지를 우리가 너무 써버려서 이제는 에너지가 없어서 살 수가 없느니 뭐 어쩌느니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얼른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말한다면 못나서 그런 거예요. 보이는 차로만 살지 말고 내가 보이지 않는 운전수로 산다면요, 운전수와 보이는 나와 같이 다니면서, 보이는 나는 모르는 사람에게 보이게끔 돼서 이익을 주고, 또 그 안 보이는 데서는 안 보이게끔 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안 보이는 것이 절반 이상 넘는다고 할 수 있으니 보이는 몸과 안 보이는 몸 어떤 것을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몸 아닌 몸을 둘 아니게 체득해서 보이는 데서나 안 보이는 데서 다 유용한 심부름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림 · 최주현

안보이는 나는 '佛性' 보이는 나는 '시자'

자기가 살아온대로 다음 소임 주어져

인간은 어디서 와 어디로 가나

문 제 마음 속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의문의 덩어리가 항시 떠나질 않고 또 제 주위의 온갖 어지러운 생각들이 멈추지 않아 누구에게라도 묻고 싶고 또 공부하고 싶은 것이 현재 저의 심정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저를 제대로 충족시켜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의 양심의 소리와 바른 법을 깨달아서 도의 길로 강하게 걸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저의 변덕스러운 마음속 번뇌를 조복시키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보람되게 살 수 없다고 믿기에 잃어버린 저의 마음을 다시 찾고 싶어서 오늘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들이 제가 있기 이전의 근원으로 가게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저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 바로 불교의 시작이고 또 제가 그것을 깨달은 후가 불교의 끝이 없는 끝인지 스님께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답 배우들이 잠시 잠깐 자기의 배역을 맡아 가지고 대사를 외우고 연기를 하는데 거지로 소임을 맡았든지 임금의 배역을 맡았든지 상관없이 그 역할로 뽑힌 것만 좋아서 그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주 쾌히 응락하고 행을 하는데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아마 내내 그냥 '너는 거지로 박혀서 살아라' 한다면 전부 꽁무니를 빼고 안 가겠지요. 그러나 잠시 잠깐이거든요. 잠시 잠깐이니깐 이건 벌어먹고 살랴, 또 활악하랴, 이름을 가져야 되겠고, 모든 게 그렇죠. 꼭 말대로는 아니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가서 활약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나면 속이 후련해져서 술 한잔을 마신다든가, 뭐 푹 쉰다든가 하면서 탁 털어 버리고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을 하고 또 다시 맡아야지 하는 그런 거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듣지 마세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럼 어디로 가기 이전에 무엇을 하는가, 배우들과 똑같은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 그 도리를 '아, 원점에서 와서 원점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또다시 소임을 맡아 가지고 나오겠지.' 이 도리를 안다면 우리가 어떠한 소임을 지금 맡았든지 겁이 나지를 않아요. 잠시 잠깐임을 알기 때문이죠.

잠시 잠깐 쉬었다 가는 길입니다. 이 쉬었다 가는 길에 부처님께서, "쉬었다 가는 교차로에서 네가 깨달아라."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도로아미타불이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을 가지고 다시 형성이 돼서 이 세상에 나와서 또 그렇게 고비를 치루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아주 팽팽하게 가지면서도 지혜롭고 폭이 넓게, 다 주고도 준 사이가 없이 다 내주라 이겁니다. 또 들여놓을 때는 들여놓는 사이 없이 다 들여야 합니다. 이 모두가 내가 조금 너그럽고 좀 더 지혜로우면 다 포용력 있게 질서를 지키고, 도의와 의리를 지키고 나와 너와 둘이 아니게 지킬 수 있고, 과거나 현실이나 미래나 모두 내가 수 억겁 광년을 돌아올 때 무엇은 안됐겠고 어리석지 안았겠나 하는 것을 한번 침착하게 생각해 본다면 미우나 고우나 모두 나 아님이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다 해도 불쌍하고, 사람 개인이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모르고 산 것이, 그것이 그만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니 얼마나 눈물나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과거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현실에 짊어진 가정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걸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지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실지도 모르지만 괜히 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내 자식 아님이 없고, 환경에 따라서 내 부모 아님이 없고, '공동묘지에 가니까 남녀노소도 없고, 여자남자도 없고 모두가 평등하게 늙었더라.' 이런 말을 한 예가 있지요. 하여튼 나는 그전부터 군더더기가 붙는 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되나 못되나 그냥, 말을 더듬거리든 말았든 내가 경험한 것만 얘기할 뿐입니다. 남들이 듣기 좋게 하는 사람은 못됩니다. 참 삶에 실천을 옮길 수 있는, 실천을 할 수 있는,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관'과 위빠사나 같은 수행인지

문 제가 알기로는 불교의 수행법에는 염불을 하거나 경을 읽는 등등 수많은 수행법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화두 참선법과 위빠사나 수행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관한다고 할 때의 관은 위빠사나 수행법에서의 일체를 지켜보는 것 즉, 걸을 때는 걷는 동작을 지켜보고, 일할 때는 일하는 주 동작을 지켜보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관찰자 입장에서 지켜보는 것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요?

그간 제가 무지하고 어리석어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관한다'는 의미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관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저는 위빠사나 수행법대로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 동작을 바라보고 홀로 조용한 시간에는 주인공을 생각하면서 망상이 들면 '이것도 당신이야' 하면서 망상과 싸우려 하지 않고 관찰자 입장에서 망상을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 관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 뿌리가 그냥 박혀 있듯이, 움쭉거리지 않고 있듯이, 나무의 이파리가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그 자체를 뿌리에다가 관하라는 거예요.

지켜볼 내가 따로 있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뿌리에다 놓고 관하라는 겁니다. 또 뿌리에다 놓고 만법을 활용하는 것도, 바로 함이 없이 하는 관은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오관을 통해서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고 하는 그 자체를 그냥 한 군데서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고 그러한 것을 관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신을 믿으라. 타의의 신을 믿으면 절대로 그것은 용납하지 않느니라."라고 하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자신(自神)을 찾으라고 한 겁니다. 자신이 하는 것이니 '자(子)는 부(父)가 하는 것을 지켜보라. 자와 부가 둘이 아니게끔 서로 상응하면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면서 이렇게도 나투고 저렇게도 나투면서 그렇게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을 지켜 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무겁게 짐진 것을, 모든 걸 놔 버려라. 네 마음으로 짐을 지워놓고 무겁게 왜 짊어지고 다니느냐,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놔버리고 쉬어라. 그대로 돌아가면서 여여하니라." 이런 뜻을 우리가 새겨서 거름으로 알고 주춧돌로 알고 기둥으로 알고 참고하면서, 자기 자신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생활하는 것을 지켜본다면 바로 이 생활이 종교요, 종교가 생활이라는 거지요.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서구인들은 왜
'라다크'를 꿈꾸는가?

작은 티베트 '라다크'
그 곳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인도 태생의 영국 시인이
라다크에서 찾은 부처

앤드류 하비 지음
연호택 옮김



이 책 『라다크에서 찾은 부처』(원제 : A Journey in Ladakh)는
인도 태생의 영국 시인, 앤드류 하비가 라다크에서 만난 스승, 링포체(Thuksey Rinpoche)를 통해 얻게 된 영적 눈뜸의 과정을 그린 책이다. 글을 쓰기 전에 입정 상태에 들어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라다크에서의 체험을 하나하나 살려내 글로 옮겼다. 지은이는 이 책을 쓸 때, 자신의 에고를 완전히 죽이고 링포체의 마음 속으로 깊이 침잠해 들어갔을 때 드러나는 생각과 지혜를 그대로 옮겼다고 한다.





저자 앤드류 하비는
인도 태생의 영국인 명상 수행가이자 시인이며 작가이다. 1952년 인도 뉴델리에서 태어나 9살에 영국으로 건너가 교육을 받았다. 21살에 옥스퍼드 대학 역사상 최연소 교수로 임명되기도 했다.
역사학자이자 시인, 세익스피어 연구자로 천재성을 나타냈지만 틀에 박힌 영국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25살에 인도로 돌아와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에 살면서 파리, 독일, 뉴욕을 오가며 강연과 저술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A5신 378쪽/ 값 12,000원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온라인 서점 www.yosiamun.com